

시기 위해서, 우리를 안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기 위해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면, 여호와를 기다리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높은 기대의 차원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말씀,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하나님에게 늘 기대할 수 있어 변치 않고 기대할 수 있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긍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에게서 항상 정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할 것은 바로 은혜와 긍휼과 정의입니다.

이 시대는 어둡습니다. 당장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삶에 짊어진 짐의 무게들은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업,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작은 일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뭐라고 질문해야 합니까? 무엇에 내 삶의 소망을 두고 있는가? 무엇에 내 삶의 소망을 두고 있는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누구를 기대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며,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기대하는 2023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 도 인 도 자
찬 송 292, 310, 384, 559장(중 택1) 다 같 이
주 기 도 문 다 같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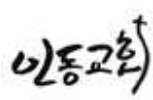
* 예배 후 조상들이 남긴 믿음을 서로 이야기하며 그분들의 유덕을 기릴 수도 있습니다. 새해 계획을 세우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명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이다
너는 평생에 여루상들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설

가 정 예 배

 대한예수교
장 로 회 

예 배 순 서

* 가능하면 가장이나 신앙의 연장자가 예배를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목 도 . . . 막 12:29-31(말씀을 인도자가 낭독) . . . 다 같 이

찬 송 . . . 287, 301, 550장(중 택1) . . . 다 같 이

성 시 교 독 다 같 이

인도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다같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인도자: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다같이: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인도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다같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다같이: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 아 멘 -

기 도 가 족 중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어려운 중에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명절인 설날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잘 건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2023년에는 기다림 끝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올 한해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바라며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는 더욱 기도와 간구에 힘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 가족이 마음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사 30:18-22 인 도 자

18.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9.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이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20.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21.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22.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말 씀 기대의 차원을 높이라 인 도 자

우리가 '높인다'라는 것은 신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높이지 않으면, 미지근하면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것을 많은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정체된 이스라엘의 예배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초대교회에도 이렇게 미지근한 자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신학적으로는 완전한 예배가 될 수 있고,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가 미지근한 예배가 되어간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